

# 2016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9.30(금) 14:00~15:30

## ■ 주요 회의 내용

### ▲ 보도의 균형과 심층성 등 제고해야

- 30일 아침 뉴스 중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관련 내용은 검찰 입장만의 보도였음. 법원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 법원의 내용이 있을 것임. 균형 있게 검찰과 법원의 내용을 함께 설명해준다면 시청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됨 (이태식 위원장)
- 국정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고발기사가 많이 눈에 띄었음. 그런데 의원실에서 주는 자료를 뉴스로 만들다 보니, 일방의 주장만을 고발처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보도들이 있어 보임. 국정조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위한 자료인데, 질의응답이 이뤄지기전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 경향이 있어보였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제목 등이 선정적으로 자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9월 25일 뉴스에서 김모의원이 국방부 감사 내용 중 " 미사일 몇 발중 몇 발이 오발 왜?" 이런 식의 기사 주제를 알 수 없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미사일 오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너무나 모호한 기사가 비판성기사로 등장하게 되는 현실임(박정숙 위원)
- 이번 달은 국정감사, 지진속보, 미국대통령 디베이트가 가장 큰 뉴스였음. 연합 뉴스의 미국 대통령 양당 후보 토론회와 그에 따른 패널들의 설명 등은 뉴스의 신속성과 동시성을 보여주는데 적합했음. 단, 미국대통령선거가 우리나라 선거방식과 다른데다가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승패에 영향을 주는 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선거인단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미국선거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 미 대선 보도 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자막을 넣어주면 유익할 것으로 보임(박정숙 위원)
- 경주 지진 사태 이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한 2주간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사실보도가 발 빠르게 이뤄져 유익했음. 하지만 후속기사에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 재난 시에는 보도 프레임에 따라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부산 가스 악취' 뉴스가 지진 보도와 함께 나오는 가운데, 지진과 관련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영상으로 원자력발전소 화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을까 싶음(박정숙 위원)

### ▲ 뉴스 소재의 균형과 보도순위의 적절성

- 16일에 보도된 “마약적발 1위 양귀비... ‘10-20대 빠르게 전파’” 뉴스는 양귀비 재배를 비롯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음. 마약 확산의 사전 예방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련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좋겠음(김상선 위원)
- 중계권과 관련이 있겠지만,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 장애인올림픽 관련 보도가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큼(김용직 위원)
- 뉴스를 시청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보도 밸류를 고려해 배열했으면 함. 아침저녁과 같이 황금시간대에 뉴스 소재로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듯 한 내용이 톱뉴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보도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보도해야 함(이태식 위원장)
- 아침뉴스에서는 전날 밤 뉴스를 다시 보여준 후 해외뉴스가 나옴. 보도순서를 밤중에 몰랐던 해외관련 뉴스를 먼저 보여주고 전날 밤의 뉴스를 보여준다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보도의 순위에서 성폭행, 성추행 관련 뉴스가 우선되고 있음. 특히 8시나 9시 저녁뉴스에서도 이런 뉴스를 톱뉴스로 다룰 필요가 있어나 하는 의구심이 듬.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시청시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소재의 순위는 재검토가 필요함(이태식 위원장)

### ▲ 화면구성, 자막, 부적절 표현 개선필요

- 많은 뉴스에서 오래된 자료화면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북한, 헌법 재판소, 검찰 관련 뉴스의 자료화면이 지루할 정도로 자주 나옴. 배경 화면의 변화가 필요함(이태식 위원장)
- 뉴스배경에 서울 전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배경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됨. 매우 흐린 날, 서울 전경이 뉴스 배경으로 나오는걸 봤는데 굉장히 어둡고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음(주철환 위원)
- 뉴스 시청 시 자막에서 한자 표기에 오탈자가 나올 때가 있음. 하지만 오류를 고치는 경향이 적음(이태식 위원장)
- 뉴스속보 자막에 종종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음.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대표적인 보도채널에서 기초적인 맞춤법조차 틀린다면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5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뉴스 1번지’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체부장관 임명을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인용문이 자막에 “전자 결재”로 표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자 결재” 표기가 맞음. 자막 내보내기 전 사전 스크린을 하고 사후에 스크린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신현택 부위원)

장)

- 숫자 처리에서 방송투가 아닌 문어적 글쓰기를 하는 사례도 발견됨. 오십삼 명이라고 읽는 기사를 들었는데 방송에서는 쉰 세 명 으로 읽는 게 더 적합함(이재경 위원)

#### ▲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의견

- 뉴스 보도시 남성앵커가 앵커 멘트를 먼저 읽은 뒤 여성앵커가 이어받고 리포트 내용을 전하는 방식인데 우선 보도를 리드해주는 남성앵커가 첫마디 후 입을 닫고 있는 표정과 시선 입모습 등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임. 한 이슈(앵커 멘트)를 한 앵커가 끝까지 진행해보면(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음(이태식 위원장)
- 모 지상파의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은 매우 재미있음. 연합뉴스 특파원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할 텐데 연합뉴스TV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좋을 것(김상선 위원)
- 연합뉴스TV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음. CNN의 경우 래리 킹 라이브처럼 앵커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대담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처럼 연합뉴스TV도 대담프로그램 등 틀에 박힌 뉴스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주철환 위원)
- 뉴스 영상에서 재연 영상이 여전히 많이 발견됨. 27일 뉴스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한 남성의 문제를 보도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소리는 현장음을 재현하고 영상은 방송사에서 만들어 붙인 부분을 보았음. 한국에서는 대부분 방송사가 하고 있는 관행이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문제가 심각함. 연합뉴스티브이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선도했으면 좋겠음(이재경 위원)

#### ▲ 앵커, 기자, 패널 관련 의견

- 앵커의 억양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바르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외래어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되고 있음. 정확한 발음 및 억양과 표준어 사용에 조금 더 노력해야함(이태식 위원장)
- 연합뉴스TV의 뉴스전달은 주로 아나운서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 하지만 경륜이 짧고 젊기 때문에 타사 대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음. 연합뉴스TV에서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뉴스 전달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주면 좋을 것(신현택 부위원장)
- 모든 앵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됨. 신선한 측면도 있지만 뉴스에서 중요한 점은 신뢰성, 전문성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연륜이 있는 앵커들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여겨짐(주철환 위원)
- 한 뉴스에 기자 1명의 리포트가 2~3차례씩 나오는 경우가 있음. 기자 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자가 다른 뉴스내용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나오다보니 어리둥절할 때가 있음. 특히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주철환 위원)

- 기자들의 기사 읽기가 투박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 읽기 연습 등 준비가 안된 느낌(이재경 위원)
- 뉴스 패널들이 너무 똑같음. 어느 방송 뉴스를 보더라도 나오는 패널들이 또 연합뉴스TV 패널로 나오는 경우가 많음. 연합뉴스TV 자체서도 오늘 나온 패널이 내일도 나오고 또 모레도 나오고 하는 중복 출연이 너무 많음. 신선한 전문가 발굴을 많이 하되 타사처럼 정치부장이나 사회부장 등 각 부서의 최고 전문가인 부장들이 출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됨(주철환 위원)

### ▲ 긍정적 평가

- 26일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연합뉴스TV 경제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문제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뜻 깊은 행사였음(김상선 위원)
- 연합뉴스 TV에 기자 스탠드업이 늘고 있어 바람직한 변화로 봄. 아직 좀 덜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음(이재경 위원)
-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즈음해서 그 다음 다음 날인 12일 자살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한 전문가인 정신과 교수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진 것은 좋아 보였음. 뉴스 전문 방송으로서 뉴스만 보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처음에는 단순히 자살예방이 되겠지만,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기댈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같은 것으로 발전되기를 기대(김용직 위원)
- 그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엄청나게 고생한 로버트 김에 대해서 연합뉴스TV에서만 나름대로 조명한 것은 의미가 있음(김용직 위원)
- 최근에 여성 기상캐스터들의 옷차림이 세련되면서도 아주 보기 좋음. 앵커들보다 풀샷이 나오는 기상캐스터들의 복장은 가끔 너무나 끼거나 튀어서 날씨에 눈이 안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적절한 수위라 느껴졌음(박정숙 위원)
- . (끝)